

S#10 교실 안(D)

자리에 홀로 앉아 멍을 때리며 있는 나은. 열린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세계 불고 있다.

담임 교사: ...그리고 또 우리 반 민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. 갑작스럽게 가게 됐지만...

앞자리 학생 1: 헐 미친...

앞자리 학생 2: 그 조용하던 애?

민지의 자리 쪽을 보는 나은. 자리는 텅 비어있다.

담임 교사: ...다들 너무 쳐져있지 말고! 이상.
(목소리 톤을 낮추며) 그리고 나은이는 선생님 좀 잠깐 볼까? 나은아?

나은: (멍때리다가 이름이 불리자 놀라며 고개를 든다) 네? 네...

S#11 교무실 안

담임 교사: 나은아, 민지 전학은 선생님도 통보받기만 하고 무슨 일인지 영... 연락이 안 되네. 학기 초에 민지가 제일 친한 친구로 나은이를 써서 냈거든. 혹시 민지가 따로 뭔갈 말해 줬다거나...그런 거라도 있니?

나은: (고개를 저으며)...아니요...

담임 교사: 그래? 혹시 짐작가는 일이라도 있어? 민지가 괴롭힘을 당했다거나...

나은: 아니요... (뜸을 들이다) 선생님, 제가 생각나면 바로 말씀 드릴게요. 저 이만...